

공직자의 부패와 자살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공직동기(PSM)를 통한 자살예방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Us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to Prevent the
Corruption and Suicide of Public Officials

김 영 종(Kim, Young Jong)**

ABSTRACT

This exploratory study focuses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suicide by public officials using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offering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findings. A total of 334 respondents, who were trained at the Central Education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and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participated in a social survey. The survey was conducted between November 1 and December 15, 2016. The survey gathered public officials' attitudes about corruption, suicide, and the application of PSM.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Win 21 program. The findings are, briefly, as follows.

First, in the frequency analysis, most respondents agreed that a high level of PSM could be useful for preventing corruption and suicide. In particular, more than 82.7% of the respondents agreed that suicide prevention based upon mental, psychological, and cognizant factors was possible, while more than 64.9%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sociocultural factors could be used to prevent suicide. Second, the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family (.800) and sociocultural factors (.654) were significant ($p < .001$) in terms of validity and reliability with PSM application. Third, the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showed that PSM based upon sociocultural factors was statistically more powerful than family factors, when referring to sociocultural correlation coefficient(.515) > family correlation coefficient(.419). Finall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a PSM education program or PSM personnel policy could be useful in preventing suicide ($p < .001$). In conclusion, we note that PSM education programs and PSM recruitment personnel policies could be useful in preventing public officials' corruption and suicide.

Key words: Public Service Motivation, Public Official, Corruption, Suicide, PSM Education Program, PSM Recruitment Personnel Policy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 과제번호 2016SIA5B5A07915568)

** 숭실대명예교수

I. 서론

한국 사회에 부여된 최대의 국가 사회적 과제는 무엇보다도 일탈부패(deviant corruption)로 인한 부패구조와 그 폐해방지 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정부 때마다 이러한 부패구조를 개혁하고자 하였으나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왜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국가사회에 해악을 주는가? 그 대답은 바로 부패의 역기능(dysfunction)과 관련된다. 한마디로 부패(corruption)는 정치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확산시키며, 제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시스템의 기능을 약화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회 암(social cancer) 적인 저해요인이 된다. 부패의 역기능은 1997년 9월에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8회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에서 발표한 Lima Declaration (리마 선언)에서 잘 압축되고 있다.¹⁾ 한국의 경우 건국 이후 오랫동안 정치행정 부패 사(history of corruption)가 시사 하는바와 같이 부패의 역기능이 국가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하였다. 그동안 역대정권은 나름대로 반 부패정책을 시도하였으나 아직도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예컨대 한국의 경제거래 수준은 세계에서 10위 내외이나 부패수준은 2015년도 말 현재로 세계 168개국 중 37위 이었으나 2016년도에는 세계176개국 중에서 52위로 더 하락하였다.²⁾ 그 요인은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으나, 실효성 있는 반부패의 제도적 장치의 미흡, 고질적 내면화된 부패문화, 부패 친화적인 풍토,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 그리고 지도자들의 신뢰성의 추락, 또는 관 피아, 정 피아 등 유착 부패 구조, 부패 예방적인 시스템의 부족, 그리고 공직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 PSM)에 의한 공직 사명자 모집의 미흡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³⁾

한국사회는 부패문화가 오랜 기간 동안에 삶의 양식(modus operandi, life style)으로 내면화(internalization)되어 왔다. 부패의 문화는 한국인의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의 실태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한국의 2013년 현재 지하경제 규모는 300조원 에 달하였으나 2015년 현재는 124조원 이며 GDP의 8%에 해당한다는 연구발표도 있다.⁴⁾⁵⁾ 높은 지하경제 의존율은 부패의 감염 도를 말한다. 흥미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

1) Lima Declaration(1997) 리마선언은 1997년 9월 7-11에 페루 리마에서 열렸던 제8회 반부패국제회의(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세계 93개국 참석)에서 참가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된 선언이다. 부패의 폐해를 요약하고 국제적인 협조를 결의한 내용이다. 예컨대 부패는 모든 사회의 도덕적 구조를 손상시키며, 빈곤층과 취약자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어기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며, 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지적하고 있다.

2) <https://www.ticambodia.org/cpi2016/>(Accessed on Feb.5, 2017), 헤럴드 경제 2015.4.20 일자 참조

3) 이 논문에서는 PSM(public service motivation)의 ‘공공봉사동기’를 ‘공직동기’로 그 용어를 줄여서 사용한다.

4) 2017년 2월17일의 조세재정연구원의 발표에 의한 것이다.

<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397>(Accessed on Feb. 17, 2017)

5) 홍콩수요저널 2013.9.18일자.

복도를 측정하는 단계에서 높은 부패 감염도로 인하여 저조한 행복도의 점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 1-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 국민의 행복도는 세계 41위에 그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부패억제가 시급하다는 것에 이론이 없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 앞서있는 국가는 무려 40여 개국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 평균수명, 국민소득, 그리고 시민의 자유 등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부패지수에서 매우 저조한 점수로서 41위에 머무르고 있다.⁶⁾ 세계경제규모 10위권 내외에 들어가는 국가로서 안타까운 일이다. 아래에 표시된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이다. 예컨대 아래의 40여개 국이 한국보다 행복도가 높은 국가들이다. 순위별로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⁷⁾

표1-1 세계각국의 행복도 (2013년 현재)

순위	국가	행복도	순위	국가	행복도
1	덴마크	7.693	13	뉴질랜드	7.221
2	노웨이	7.655	14	아랍에미레이트	7.144
3	스위스	7.650	15	파나마	7.143
4	네덜란드	7.512	16	멕시코	7.088
5	스웨덴	7.480	17	미국	7.082
6	캐나다	7.477	18	아일랜드	7.076
7	핀란드	7.389	19	룩셈부르크	7.054
8	오스트리아	7.369	20	베네수엘라	7.039
9	아이슬랜드	7.355	21	벨지움	6.967
10	호주	7.350	22	영국	6.883
11	이스라엘	7.301	23	오만	6.853
12	코스타리	7.257	24	브라질	6.849
25	프랑스	6.764	33	사우디아라비아	6.480
26	독일	6.672	34	사이프러스	6.460
27	카타르	6.666	35	콜롬비아	6.416
28	칠레	6.587	36	태국	6.371
29	알제티나	6.562	37	우루과이	6.355
30	싱가포르	6.546	39	체코공화국	6.290
31	토바고	6.519	40	수리남	6.269
32	쿠웨이트	6.515	41	대한민국	6.267

6) 이데일리 2015.5.18; http://www.sciencetimes.co.kr/?p=117700&post_type=news&paged=16(Accessed on Jan.15, 2017)

7) http://worldhappiness.report/wp-content/uploads/sites/2/2013/09/WorldHappinessReport2013_online.pdf(Accessed on Jan20, 2017)

한국은 자살률이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이다⁸⁾. 한국의 공직자들이 부패로 인한 자살률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마지막 도피수단으로 자살행위를 자행함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⁹⁾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공직동기를 활용하여 부패방지와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연구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 분야에 탐색적연구(exploratory study)가 될 것이다. 다만 공직동기이론에 관한 것은 드물게 있다. 예를 들면 김상목(2013: 244)은 공직동기이론을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 하되 우리나라의 공직동기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을 발견하였다.¹⁰⁾ 최도림(2004)은 공직동기와 윤리규범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요컨대 이 연구는 공직 동기이론(PSM, Public Service Motivation)을 적용하여 공직자의 부패와 자살예방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부패와 공직동기 그리고 자살률은 역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PSM(공직동기) = -f(Corruption(부패), Suicide Rate(자살률))로 표현 할 수 있다. 즉 공직동기가 높으면 부패는 감소하고 자살률도 낮아진다. 공직동기가 낮으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독립변수인 공직동기를 고취시키는 반부패 교육과 인사정책이 요청된다. 구체적으로 동기가 높은 자들을 충원하거나 공직동기 특별교육을 학교 교육에 시행하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자살(suicide)은 인간의 귀한 생명을 자의적으로 포기하는 극단적인 일탈행위이다.¹¹⁾ 따라서 자살행위는 목숨과 바꿀 만큼 고뇌와 갈등이 최고도의 수준에 도달한 결과적 행위라고 추정할 수 있다. 무려 85명의 자살 혹은 자살을 시도한 ‘자살다리’ 라고 부르는 ‘마포교’에는 ‘무슨 고민 있어?’, ‘밥은 먹었어?’, ‘힘 들었구나!’ 등의 경구가 쓰여져 있다. 앞서 논의한 대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가(34개국)에서 자살률 제1위인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¹²⁾ 왜 자살할까? 자살은 다양한 원인과 행태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의 자살학자 토마스 조인 너(Thomas Joiner)(2005)의 연구에 의하면 자살 위험성은 무려 75개 이상의 요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만큼 복합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직자들의 자살은 부패가 주요 요인이며 특히 ‘베르테르’ 효과(전염성 파급효과)(고수철 2016: 63-68)는 매우 충격적이다. 따라서 자살예방은 시급한 정책적 과제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공직동기가 부패방지와 자살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인 검증을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있다. 공직자부패는 최악의 경우 자살로 이어지고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세계 각국에서 공직자들이 자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8) 고수철, (2016), 자살예방 전문교육사 및 상담자격 인증교육(전문과정) 서울: 사단법인 두드림 자살예방중앙협회: 82.

9) 공무원의 최근 3년 동안 자살자수는 2013년 73명, 2014년 87명, 2015년 92명으로 증가추세이다. 서울신문 2017.3.29일자.

10) 예컨대 한국인의 공직동기수준은 국제간의 비교에서 제일 낮은 3.799이었다.

11) 이 윤주(2008), 청소년 자살상담 서울: 학지사: 1-175.

12) 이기춘(2016), “자살의 심리적 특성과 요인분석”, 자살예방전문교육사 및 상담사자격인증교육 전문과정교재, 서울: 두드림자살예방중앙협회: 82.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경우는 “2013년 1월- 2014년 4월 자살한 공직자는 최대 54명”으로 추산된다.¹³⁾ 2014년도에 “중국에서는 72명의 관리가 자살하였고, 2012년까지 9년간 112명의 공직자가 자살한 통계”가 있다.¹⁴⁾ 그러나 OECD 가입국 중에서 자살률 제 1위인 한국의 경우 노인이나 청소년들의 자살률의 통계가 발표되고 있으나 공직자들의 자살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불행하게도 공직자 부패의 수사과정에서 고급공무원, 시장, 도지사, 재벌기업 회장,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자살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한국과 OECD회원국의 자살률을 비교하면 2013년도 현재 인구 10만 명당 평균 12명이나 한국은 2014년 현재 27.3명으로서 1위이고, 헝가리 2위 19.4명, 일본 3위 18.7명이며 터키가 가장 낮은 2.6명이고 다음은 그리스 4.2명이다. 한마디로 1985년 이후 세계 각국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한국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임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¹⁵⁾ 부패지수와 자살지수는 역 비례 관계에 있다. 구체적으로 부패지수(CPI)가 높으면 자살률이 낮아진다. 예컨대 부패지수가 1점 증가 하면 자살률은 0.62점 감소한다. 그리고 부패지수가 절댓값 일 때 남자는 0.91, 여자는 0.32 약 3배로 남자의 자살률이 높다. 부패를 감소시키면 ‘자살공화국’이 붕괴된다. 따라서 ‘청렴공화국(Republic of Integrity)’ 건설이 자살예방을 위해 최고의 정책이다.

자살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¹⁶⁾ 조이너(Thomas Joiner)는 무려 75개로 그 원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도피이론(escape theory)에 의하면 부패로 인하여 “막다른 골목에서 처벌을 두려워 목숨을 끊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유” 라고 설명한다. 즉 자살 위험을 인간의 외적 환경과 심리 정신적 요인, 그리고 인지적 요인등 여러 다양한 요인들과 비교하여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델이다.¹⁷⁾

이 연구는 공직자의 자살이 주는 충격과 그 파급결과를 사전에 예방 하는 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자살예방에 대한 관련법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법률 제10516 제정 2011.3.30)”이 2011년에 입법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중앙기관장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인력, 예산, 홍보, 효과성, 관심 등 보다 강력한 범국가적

13) C:\Users\aa\Desktop\공직자부패와 자살\시진 핑 반부패 정책 이후 공직자 자살급증(한, 중) - NTDTV, 글로벌 중화권 미국방송사, New Tang Dynasty Television.mht (Accessed on March 3, 2016)

14) <http://www.mcclatchydc.com/news/nation-world/world/article24785056.html> (Accessed on May 7, 2016).

15) <http://www.koreatimesus.com/11-years-in-a-row-south-korea-is-no-1-in-suicide-rate-among-oecd-countries/> (Accessed on May 16, 2016). 고수철(2016), 자살 예방 전문교육사 교재 서울: 두드림 자살예방중앙협회: 65.

16) Thomas Joiner(김재성 옮김)(2012), 왜 사람 들은 자살 하는가? 서울: 황소자리출판사: 246

17) P Dean and L Range(1999), “Testing the Escape Theory of Suicide in an Outpatient Clinical Popul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3(6): 561-572.

인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살예방의 국가정책개발을 모색하는 중요한 모멘텀(momentum)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자살예방의 요인으로서 부패예방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 대안으로서 공직자의 동기(PSM)강화의 중요성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부패, 자살, 공직동기 이론의 상호관련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공직동기를 가진 자를 충원하거나 공직동기 강화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와 자살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공직자의 부패와 자살예방 논의

1. 공직자의 부패개념

한국의 현행 헌법 제7조에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 된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29조 1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 한다”고 하고 있다.¹⁸⁾

여기에서 공무원(public officer)이란 어떤 자인가?¹⁹⁾ 그리고 공직자와는 어떤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가? 첫째, 최 광의의 경우는 “일체의 공무담당자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경우에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있는 공무담당 구성자 전부”가 해당된다. 둘째, 광의의 경우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서 공무를 담당하는 구성자”로서 예컨대 국가의 헌법기관 구성자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다. 셋째, 협의로서 “행정법상 특별권력관계의 근무관계로서” 직업공무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최 광의로 보아 공무원은 바로 공직자라는 의미로서도 사용한다. 실제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요 책임자며 또한 이념적 대표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에 대한 기대가능성은 일반인보다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공직자라는 의미는 일체의 공공기관, 국가, 조직체 등에서 공무를 담당하는 모든 구성원과 지도층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공직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창출된 공공기관이며(public agency created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공익을 위한 봉사자가 공직자라고 할 수 있다.²⁰⁾

18) 구병삭(1988), 신한국헌법론 서울 : 일신사: 622.

19) 김영중(2017), 신부패학 대전: 대경출판사: 92-93.

20) Young Jong Kim(1990), Bureaucratic Corruption : The Case of Korea(2nd ed.):Seoul : The Chomyung Press: 8-9.

그러면 공직자가 부패함은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공직자가 국민의 “기대가능성(expectation)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불법적 비윤리적 일탈행위(deviant behavior)”를 말한다.²¹⁾ 공직은 천직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청렴하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봉사해야하는 것이 본래의 뜻이다. 봉사의 원래의미는 식당에서 손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뜻(to wait at table)으로 사용하였다.”²²⁾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패한 공직자가 공지에 몰려 극단적인 도피행위로서 부패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바로 자살행위가 발생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도피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공직동기이론의 적용이다. 공직동기(PSM)는 부패의 사전예방이나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다음에 이러한 공직동기의 이론을 살펴본다.

2. 공직동기(PSM)의 이론적 배경

공직동기이론(PSM theory)은 학자에 따라서는 약간씩 개념정의가 다르나 본질은 봉사와 희생이다. 즉 사회봉사(social service)(Perry 1996, Kim 2013: 59-60), Perry & Hondeghem 2008), 자기희생(self-sacrifice), (Perry 1996), 그리고 이타주의(altruism) (Perry & Wise 1990; Rainey & Steinbauer 1999) 등으로 사용된다. PSM은 1990년대에 James L. Perry와 Loise R. Wise (1990: 367-373)가 처음으로 연구한 후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확산되어 왔다. 즉 PSM은 기본적으로 공적 조직에서 유래된 동기(motives grounded primarily in public organizations, Perry and Wise 1990: 368)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PSM은 공직기관에서 동기에 상응하는 “개인의 성향(predisposition), 합리적 동기(rational motives), 규범적 동기(normative motives), 정적동기(affective motives) 라고 하는 데에 공감대”를 이룬다.²³⁾ 본 연구자는 PSM이란 “정직하고 자기희생적인 경향을 가지고 공직자가 시민을 섬기는 소명(calling)이고 영감(inspiration)” 이라고 정의한다.²⁴⁾ 김상묵(2013: 78)은 공직동기를 “공공가치실현과 공익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려는 동기” 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한편 선교신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공직자가 정직하게 백성들을 봉사하기 위한 소명(calling)인 공직을 천직이라고 하는 소명을 느낄 때 공직자는 일탈행위를 할 수 없고 오직 국민을 위

21) Young Jong Kim(2003), New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and Corruption Studies Seoul: HyungSeul Publishing Co.: 160-161.

22)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할 것. 봉사(diakonevw)’라는 헬라어는 눅 17:8 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뜻은 식당에서 손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뜻(to wait at table)으로 사용하였다. 이 병철(2013), Bible Rex (9.0), 서울 : Peniel Bible Research.

23) 김영중(2016), “공직동기이론(PSM)을 통한 공직자일탈행위 억제:투명사회를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1(1):74.

24) Young Jong Kim et al.(2016) “Explor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corruption theories” in Evidence-based HRM: a Global Forum for Empirical Scholarship, Vol. 4 Iss 2:181-186.

한 진정한 봉사자(public servants)가 될 수 있다. “예컨대 구약성경에서 출현하는 모세의 부름(출 3:1-12)은 백성을 섬기기 위한 소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²⁵⁾ 공직자는 공직봉사의 소명을 느낄 때 그의 지위에 대한 역할(role)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일탈행위로 인한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 자살이론의 배경

자살이란 무엇인가? 자살은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kill oneself willfully ending one's own life)”(고수철 2016: 36)이다. 이 윤주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거나 끊으려고 시도하는 행동 혹은 그러한 경향”이라고 정의한다.²⁶⁾ 자살의 유형은 자살행위(suicidal behavior)는 ‘자살사고’ 혹은 ‘생각’(suicidal ideation or thought), ‘자살시도’(attempted suicide), 그리고 ‘자살완료’(completed suicide)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미국 의사협회, 정신의학 협회는 도피 형 자살, 감정적 자살, 동경 자살, 공격적 자살, 청산 형 자살, 외인자살로 분류 하고 있다. 생명은 천하보다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것이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한국은 자살률이 OECD 가입 국가 중 제일 높다. 왜 자살할까? 자살학자 조이너(Thomas Joiner) 는 아버지가 자살한 것에 충격 받아서 자살연구를 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현재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무려 2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²⁸⁾ 그에 의하면 자살발생률을 논의하면서 미국에서 매년 3만 명이 자살, 하루 80명 즉 18분에 한명 자살하며, 세계적으로는 매년 약 100만명, 40초에 한명이 자살한다. 자살인구통계를 보면 남성 자살률0] 여성에 비해 약 3배 높으며 평균적으로 여성 1명당 남성 4명이 자살로 사망한다. 예컨대 1990-1997년 미국 시골지역의 남성 자살률이 10만 명당 29명인데 반해 도시지역은 10만 명당 17명이다. 중국의 경우 여성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14.8명이며 남성의 13명보다 높다. 일반적으로 세계의 남:여 자살률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인도 1.34: 1, 필리핀 1.47:1 싱가포르를 1.95:1, 한국 2.27:1, 태국 2.33:1, 일본 2.59:1, 스리랑카 2.65:1 으로서 남성이 여성 자살률 보다 높다.

프랑스의 자살학자 에밀 뒤르캄(Emil Durkheim)은 자살을 네 가지 유형(고수철 2016: 64-65) 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하고 있다.²⁹⁾ 첫째, “이기적 자살(egoistic suicide)”, 즉 “사

25) 전계서:74

26) 이 윤주(2008), 청소년 자살상담 서울: 학지사: 1-175.

27) ‘천하’라는 원래의 헬라어인 ‘kovsmo’(코스모스)는 세계(world)라는 의미를 가진다. 헬라 철학에서 코스모스는 근본적인 용어로 등장하는데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세계, 우주, 땅’과 그 거민들, 인류라는 의미를 가진다(마16:26).

28) 토마스 조이너(김재성옮김) (2005),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서울: 황소자리 출판사:1-333.

29) <https://ko.wikipedia.org/wiki/%EC%9E%90%EC%82%B4%EB%A1%A0>(Accessed on Jan.15,2017) 에밀뒤르캄은 1897년의 그의 저서 ‘자살론(Le suicide)’에서 네가지 자살유형을 주장하고 있다.)

회적 통합정도가 낮고 개인이 속한 집단의 결속이 약하거나 깨져서 고립되어 있을 때 많이 나타나는 자살유형”이다. 둘째, “아노미적 자살(anomic suicide)”인데, “사회적 규제가 부족할 때 발생하며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불안정으로 인해 ‘무규범’(anomie)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상황 때에 발생”하는 유형이다. 셋째, “이타적 자살(altruistic suicide)”, 즉 “개인이 ‘과도하게’ 사회에 통합되어 있을 때, 사회적 결속이 너무 강할 때, 사회의 가치를 개인의 가치보다 더 중시할 때 일어나는 유형”이다. 이 경우는 “위대한 선을 위한 희생이 되는 자살이다.” 마지막으로 “숙명론적 자살(fatalistic suicide)”로서 “개인이 사회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될 때 개인에 대한 억압은 운명 혹은 사회 앞에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자살”이다.

조이너(Thomas Joiner)(2005)는 자살이론에서 “짐이론”을 주장한다. 특히 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짐’이 되는 부담감 때문에 자살한다는 이론이다. 여기에 입증할 만한 실화를 소개한다. “아들 둘을 가진 부부가 있었다. 큰아들은 공무원이었는데 작은 아들이 모셨다. 둘째 며느리가 유방암이 걸려 큰아들에게 부모를 모시도록 권하였다. 그러나 큰며느리의 반대로 모시지 아니하였다. 결국 큰 아들 부부는 이혼하고 말았다. 여기에 부담과 짐이 됨을 느낀 부모는 (70대) 어느 날 한강다리에서 손을 붙잡고 자살하고 말았다.” 짐이 된 것이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었다. 지금부터 약 7-8년 전의 사건으로서 언론에도 보도된 충격적인 자살사건이었다. 결론적으로 왜 사람들은 자살할까? 조이너의 연구에 의하면 많게는 75가지의 변수가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이론 짐이론(부담), 소속감 상실, 그리고 단절감(고독감)은 중요한 요인이다.

도피이론(escape theory)(Dean, P, and Range, L 1999: 561-572)은 사회문화적 외적환경이 ·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고 상황이 지속 하게 되면 위기상황을 유발하여 자살로 이어진다는 이론. 즉 자살은 ‘자기로부터의 도피’ 혹은,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런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념 정의한다. 이 이론은 6단계가 있다. 1단계는 외적 환경으로 인한 현실표준에서 벗어나는 단계, 2단계는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자기 존중 감의 저하단계, 3단계는 지나치게 자기를 인식하는 단계, 4단계는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정서상태의 단계, 5단계는 인지적 왜곡 단계로서 자살(생각, 행동, 완료) 단계, 마지막은 다양한 변수들이 일련의 경로를 거치면서 자기 파괴적 결국 자살을 결정하는 단계이다.³⁰⁾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평균치(12.1%)를 훨씬 넘는 수준(27.3%)이고 OECD 가입국 중 최고수준이다.(고수철 기본과정 2016: 65 고수철 전문과정 2016: 82) 자세한 것은 다음의 표 2-1을 참고하기 바란다.³¹⁾

30) 권오균, “저소득 독거노인의 자살생각 인과모형에 관한연구: 자아존중감, 우울감, 절망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usal Model of Suicide Ideation among the Low-Income Elderly Persons who Living Alon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Depression, and Hopelessness)” (박사학위논문), 서울: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3:1-124.

31) 2011년 현재 OECD 평균자살률은 12.9명이나 한국은 33.5명이다.

표2-1 한국의 자살자 통계(2016년)

년도	자살자수	하루의 자살자	10만 명당
2011	15,906	43.6	31.7%
2012	14,160	38.7	28.1%
2013	14,427	39.5	28.5%
2014	13,836	37.9	27.3%(세계 12.1%)

출처: 고수철(2016) 자살예방전문교육사 인증 교육강의 기본과정 자료집 서울: 두드림 자살예방중앙협회: 65.

이와 같이 높은 자살률은 공직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부패와 공직자들의 자살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특히 엘리트 공직자들이 부패에 연루되어 사법당국에서 사법처리 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귀한 생명을 버리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본인보다도 가족이나 공직사회에 주는 충격적인 영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예방은 부패방지와 함께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국가사회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공직자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명을 가진 공복이며 그 책임은 지극히 중요하다. 따라서 부패의 방지는 확고한 공직사명 즉 공직동기(PSM)를 가진 자가 바로 부패를 방지할 수도 있고 자살예방도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공직동기는 공직부패의 처방과 공직자자살 예방의 핵심적인 치료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다음 장에서 실증적인 조사 설계의 분석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론과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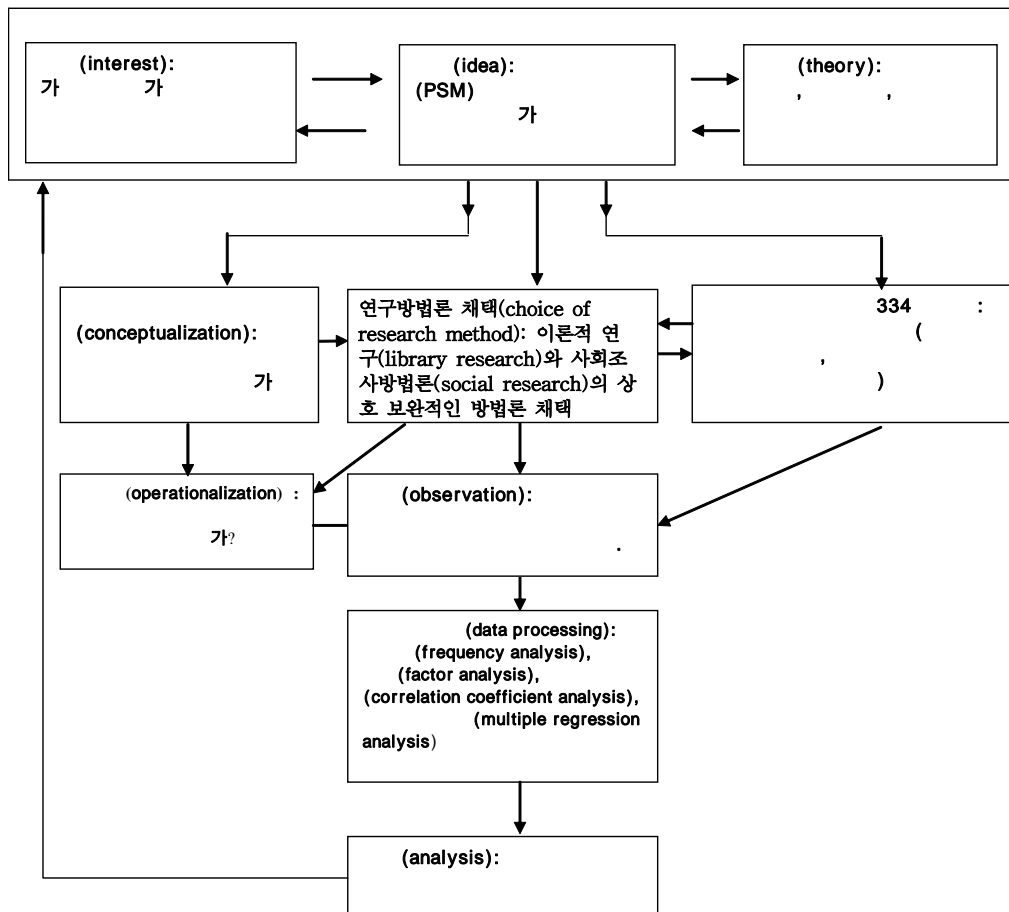
이 연구는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행위를 하는 공직자가 부패의 결과를 두려워 목숨과 바꾸는 심각한 자살행위나 시도에 주목한다. 공직자들의 자살예방 전략은 무엇일까? 공직동기부여에 의한 채용, 교육, 사기진작, 승진, 조직문화, 조직발전, 리더십 등을 강조하는 획기적인 새로운 인사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공직동기를 이용한 자살예방 전략은 기존연구가 없으므로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그림 1-1에서 연구방법론의 경로를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서는 관심(interest)과 착상(idea)과 이론(theory)의 세 영역에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접근한다. 이론과 실제(practice)의 연구를 통합하되 왜 자살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지(questionnaire)에 대한 표본 공직자들의 인지적 답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SPSS Win21 프로그램에 의한 통계처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library research)에서는 부패와 자살과 그리고 공직동기의 개념과 관계성

을 체계적으로 논의한다. 즉 부패수준이 높으면 자살률이 역시 높으며 공직동기가 높으면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실증적 접근방법(empirical approach)에서는 판단표본추출(judgment sampling: 남궁근 2011: 538-539)된 공직자 334여명을 표본화(sampling)하여 부패, 자살, 그리고 공직동기에 대한 사회 조사지를 이용한 태도 조사를 하였다. 자작한 설문조사지의 문항은 독립변수 다섯째 문항(공직동기 교육 프로그램에 의한 자살예방가능성)과 여섯째 문항(공직동기 인사정책에 의한 자살 예방가능성)이었다. 반면 1문항-4문항은 모두 종속변수 문항이었다.

그림3-1 공직동기, 부패이론과 자살예방의 연구방법론³²⁾



출처: Earl R. Babbie(1979),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Belmont(CA): Worthworth Publishing Co., Inc.: 107.

32) 이 그림은 Earl R. Babbie(1979)가 제시한 방법론에 연구자의 논제를 접목하여 만든 것이다.

즉 1문항은 공직동기가 가족관계 갈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가능성, 2문항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의 예방가능성, 3문항은 정신적, 심리적, 인지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 4문항은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한 자살예방으로 나누었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전체문항은 모두 6개 문항이었다.³³⁾ 이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론의 흐름과 공직 동기, 부패이론, 그리고 자살예방의 상호관련성, 그리고 연구의 진행과정은 그림 3-1에서 잘 나타나 있다.

데이터(data)는 SPSS의 Win 21 Program에 의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요인 분석(factor analysis),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그리고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하였다. 즉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와 추론통계학(inference statistics)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범위(scope of study)는 공직동기가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로서 자살 예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표본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검증한 탐색적인 연구(exploratory study)로서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가 아직 없으므로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IV. 조사 설계와 방법

1. 연구 설계와 데이터 수집절차

이 연구에서는 공직자들의 부패로 인한 자살예방을 공직동기를 높임으로서 그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측정하기 위하여 공직동기를 2개의 독립변수 문항으로 설정하고 4개의 종속 변수로서 자살과 부패의 관련 문항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5단계의 Likert 설문지를 통하여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재산 정도 등 5개의 통제변수(control variable)를 배경으로 표본공무원들의 공직동기와 자살예방 관련 인지도를 측정하였다.³⁴⁾ 이 데이터는 판단표본(judgement sampling) 추출된 지방행정연구원 공무원 연수생과 중앙교육공무원 연수생 334명을 표본으로 하여 2016년 11월 1일 -12월 15일 사이에 조사 수집된 데이터를 SPSS Win 21프로그램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로 얻어진 것이다.³⁵⁾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과 데이터 클리닝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33) 도피이론은 자살이 사회문화적 환경의 요인으로 관련지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참조할 것. Dean, P, and Range, L. 1999: 561-572

34) 설문지는 부록을 참조할 것. Likert 척도는 1930년대 초 Resis Likert 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개인의 생각, 지각, 감정 등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35) 모집단의 구성요소를 가운데 표본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표본추출방법이다. 남 궁근(2011), 행정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538.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각 변수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넷째, 공직자 동기가 자살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데이터 분석결과

1)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연구주제를 다루기 위하여 기술적인 통계로서 빈도분석은 현황이나 특별한 기준이 없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통계변수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4-1>과 같다. 분석결과 성별은 남성 276명(82.6%), 여성 58명(17.4%)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20대 4명(1.2%), 30대 14명(4.2%), 40대 21명(6.3%), 50대 이상 295명(88.3%)으로서 50대 이상이 제일 많았다. 학력은 고졸 54명(16.2%), 대졸 232명(69.5%), 대학원 이상 48명(14.4%)으로서 대졸이 69.5%로서 제일 많았다. 결혼여부는 기혼 317명(94.9%), 미혼 17명(5.1%)으로 나타났다. 재산정도는 상 7명(2.1%), 중 279명(83.5%), 하 48명(14.4%)으로서 중류층이 83.5%로서 대부분이었다. 직업은 모두 공무원이었고 표본수(sample size)는 334명이었다.

이 연구의 핵심적인 중요성이 있는 공직동기강화 정책에 대한 빈도분석결과는 <표4-2>와 같다. 분석결과 먼저 공직동기부여 교육프로그램은 ‘매우 그렇다’ 8명(2.4%), ‘그렇다’ 121명(36.2%), ‘보통이다’ 157명(47.0%), ‘그렇지 않다’ 38명(11.4%), ‘매우 그렇지 않다’ 10명(3.0%)으로 나타나 전체 85.6%가 공직동기 교육프로그램 실시가 자살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공직동기가 높은 공직자를 우선 채용하는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매우 그렇다’ 17명(5.1%), ‘그렇다’ 97명(29.0%), ‘보통이다’ 136명(40.7%), ‘그렇지 않다’ 75명(22.5%), ‘매우 그렇지 않다’ 9명(2.7%)으로 나타나 전체 74.8%가 공직동기가 높은 공직자를 우선 채용하는 인사정책이 자살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빈도분석에서 높은 공직동기부여 전략이 자살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 탐색적 연구(exploratory study)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4-1〉 조사대상자(통제변수)의 일반적 특성

N=334

구분		빈도(N)	퍼센트(%)
성별	남성	276	82.6
	여성	58	17.4
연령	20대	4	1.2
	30대	14	4.2
	40대	21	6.3
	50대 이상	295	88.3
학력	고졸	54	16.2
	대졸	232	69.5
	대학원 이상	48	14.4
결혼여부	기혼	317	94.9
	미혼	17	5.1
재산정도	하	48	14.4
	중	279	83.5
	상	7	2.1
전체		334	100.0

〈표4-2〉 공직동기우선 정책에 대한 응답결과 빈도 분석

N=334

구분		빈도(N)	퍼센트(%)
공직동기 교육프로그램	매우 그렇지 않다	10	3.0
	그렇지 않다	38	11.4
	보통이다	157	47.0
	그렇다	121	36.2
	매우 그렇다	8	2.4
공직동기가 높은 공직자를 우선 채용하는 인사정책	매우 그렇지 않다	9	2.7
	그렇지 않다	75	22.5
	보통이다	136	40.7
	그렇다	97	29.0
	매우 그렇다	17	5.1
전체		334	100.0

공직동기가 자살예방에 대한 영향에 대한 빈도분석의 실시결과는 <표4-3>과 같다. 분석 결과 먼저 가족관계 갈등으로 인한 자살예방은 ‘매우 그렇다’ 4명(1.2%), ‘그렇다’ 51명(15.3%), ‘보통이다’ 93명(27.8%), ‘그렇지 않다’ 147명(44.0%), ‘매우 그렇지 않다’ 39명(11.7%)으로 나타나 전체 44.3%가 높은 공직동기가 가족 관계의 갈등(예: 형제자매나 부모와 갈등)으로 인한 공직자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예방은 ‘매우 그렇다’ 2명(0.6%), ‘그렇다’ 63명(18.9%), ‘보통이다’ 99명(29.6%), ‘그렇지 않다’ 143명(42.8%), ‘매우 그렇지 않다’ 27명(8.1%)으로 나타나

전체 49.1%가 높은 공직동기는 공직자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신적, 심리적, 인지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은 ‘매우 그렇다’ 28명(8.4%), ‘그렇다’ 171명(51.2%), ‘보통이다’ 77명(23.1%), ‘그렇지 않다’ 54명(16.2%), ‘매우 그렇지 않다’ 4명(1.2%)으로 나타나 전체 82.7%가 높은 공직동기는 공직자가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인지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 할 수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특히 독립변수인 공직동기가 이 부문에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공직동기의 고저나 강약은 공직자의 내면적 정신적 심리적 요인에 속한 자기헌신과 봉사에 속하므로 그 개념적인 정의와 실증적인 분석결과가 일치하는 것이라고 본다.

자기 파괴적 도피행위인 자살예방은 ‘매우 그렇다’ 11명(3.3%), ‘그렇다’ 111명(33.2%), ‘보통이다’ 95명(28.4%), ‘그렇지 않다’ 99명(29.6%), ‘매우 그렇지 않다’ 18명(5.4%)으로 나타나 전체 64.9%가 높은 공직동기는 ‘공직자 자신이 부패로 인한 자기 파괴적 도피행위인 자살예방을 할 수 있다’ 고 인지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자살예방은 정산적,심리적, 그리고 인지적인 요인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는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도피행위로서 부패문제를 극단적인 행위로서 해결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하는데 많은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다.

〈표4-3〉 공직동기가 자살예방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빈도분석

N=334

구분		빈도(N)	퍼센트(%)
가족관계 갈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매우 그렇지 않다	39	11.7
	그렇지 않다	147	44.0
	보통이다	93	27.8
	그렇다	51	15.3
	매우 그렇다	4	1.2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예방	매우 그렇지 않다	27	8.1
	그렇지 않다	143	42.8
	보통이다	99	29.6
	그렇다	63	18.9
	매우 그렇다	2	.6
정신적, 심리적, 인지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	매우 그렇지 않다	4	1.2
	그렇지 않다	54	16.2
	보통이다	77	23.1
	그렇다	171	51.2
	매우 그렇다	28	8.4
자기 파괴적 도피행위인 자살예방	매우 그렇지 않다	18	5.4
	그렇지 않다	99	29.6
	보통이다	95	28.4
	그렇다	111	33.2
	매우 그렇다	11	3.3
전체		334	100.0

2) 요인분석(factor analysis)

탐색적 요인 분석은 측정변수와 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강한 가정이 없이 표본 자료 내에 들어있는 요인의 구조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고 부패로 인한 극단적인 자살행위의 결과를 발견하는데 유익한 방법론적 도구이다. 따라서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을 논의하여 본다. 검증을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은 변수의 선정을 거쳐, 척도형태의 결정, 표본수의 결정, 자료의 입력, 자료의 표준화, 변수간의 상관관계계산, 요인 추출모델의 결정, 요인추출, 요인적재량산출, 요인의 회전, 요인의 해석, 요인점수의 산출, 요인점수의 추가적 분석에 활용 등의 순으로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변수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소수의 주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³⁶⁾을 이용하였고, 각 요인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직각회전(varimax)³⁷⁾ 방식을 통해 요인해석을 단순화하였으며, 이론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고유값(eigen value)³⁸⁾이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는 Kaiser의 기준을 고려하였다. 또한 Kaise-Mayer- Olkin(KMO)(최태성,김성호:370)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어지는 정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척도의 값이 작으면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 선정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³⁹⁾ 보통 KMO값이 .90이상이면 아주 좋은 것이고 .50이하이면 변수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 문항 척도로 측정된 문항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는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간의 내적 일 치도를 보는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⁴⁰⁾ 일반적으로 신뢰도의 척도인 Cronbach's 값은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60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보며 .50 이상이면 분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공직자 동기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공직동기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4-4>와 같다. 먼저 Bartlett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140.128(p=0.000)$ 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0.500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

36) 칼 피얼슨(Karl Pearson)이 1901년에 제안한 다변량방법에 의한 요인분석통계방법을 말한다.

37) 요인계수의 분산을 최대로 하는 기준을 말한다.

38) 자료행렬을 요약하는 날개의 수치 즉 특성치 라고도 한다.

39) Kaiser Meyer Olkin 이 제시한 분석대상의 변수가 요인분석에 적합 하려면 변수 간에 상관계수가 크고 KMO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요인분석에 적합한 변수로 구성되어있다고 하며 0에 가까울수록 부적합하다, 최소한 0.6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40) 신뢰성계수(coefficient of reliability)로서 내적일관성척도이며 0.6이상이면 만족할만하나 0.5이상은 수용 할만하다. https://en.wikipedia.org/wiki/Cronbach's_alpha (Accessed on Feb.20,2017)

다. 그 결과 총 1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요인 1(79.357%)은 ‘공직자 동기’로 명명하였다. 이 1개의 요인 적재 값이 $\pm .4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4〉 공직동기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N=334

요인	문항	성분
		요인1
<u>요인</u> 공직자 동기	1. 공직동기 교육프로그램 실시가 자살예방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891
	2. 공직동기가 높은 공직자를 우선 채용하는 인사정책이 자살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891
고유값		1.587
분산설명(%)		79.357
누적설명(%)		79.357
신뢰도		.736

KMO=0.500, Bartlett's test $\chi^2=140.128$ (df=1, p=0.000)

(2) 자살예방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자살예방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4-5>와 같다. 먼저 Bartlett(최태성, 김성호2004:369)의 단위행렬 점검 결과 $\chi^2=408.424$ (p=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0.734로 나타났으며, 공통성 등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측정 자료의 요인분석 가정을 만족시키므로 다음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⁴¹⁾ 그 결과 총 2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각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중심개념을 바탕으로 요인 명을 부여하였다. 즉, 요인 1(41.425%)은 ‘가족관계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37.697%)는 ‘사회문화 환경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2개의 요인 적재 값이 $\pm .40$ 이상으로 나타나 추출된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신뢰도 또한 $.60$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41) 바트렛(Bartlett)이 1937년에 제시한 구형성 검정(Bartlett test of sphericity)은 분석대상이 되는 변수들의 두변수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검정하는 것이다. <표5-4>에서 유의확률 p값이 기준치인 .05 보다 적은 0.000 이므로 모형의 적합성은 매우 좋은 편이다.

〈표4-5〉 자살예방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N=334

요인	문항	성분	
		요인1	요인2
요인1 가족관계요인	1. 높은 공직동기가 가족 관계의 갈등(예: 형제 자매나 부모와 갈등)으로 인한 공직자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904	.198
	2. 높은 공직동기는 공직자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840	.331
요인2 사회문화환경 요인	4. 높은 공직동기는 공직자 자신이 부패로 인한 자기 파괴적 도피행위인 자살예방을 할 수 있다.	.186	.869
	3. 높은 공직동기는 공직자가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인지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 할 수 있다.	.315	.778
고유값		1.657	1.508
분산설명(%)		41.425	37.697
누적설명(%)		41.425	79.122
신뢰도		.800	.654

KMO=0.734, Bartlett's test $\chi^2=408.424$ (df=6, p=0.000)

3) 상관관계 분석(corelation coefficient analysis)

상관관계분석은 회귀분석 전단계로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식이 신빙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 전에 꼭 필요한 단계이다. 즉 공직동기가 독립변수로서 그리고 자살예방이 종속변수로서 사용하여 원인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각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4-6>과 같다. 먼저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결과 공직자 동기는 하위문항별 '공직동기 교육프로그램'(M=3.24), '인사정책'(M=3.11) 순으로 나타났고, 자살예방은 하위문항별 '사회문화 환경요인'(M=3.24), '가족관계요인'(M=2.56) 순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직자 동기의 하위 문항별 공직동기 교육프로그램, 인사정책은 자살예방의 하위문항별 가족관계요인, 사회문화 환경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첫째, 공직동기 프로그램은 가족관계 요인(.468***) 보다 사회문화 환경(.515***) 과 더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인사정책도 가족관계요인(.419***) 보다 사회문화 환경(.435***)의 자살예방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입증되었다($p<.001$). 요컨대 자살 예방에 필요한 것은 높은 공직동기가 가족관계요인보다 사회문화의 환경요인에 더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었다.

〈표4-6〉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N=334

구분		M±SD	공직자 동기		자살예방	
			공직동기 교육 프로그램	인사정책	가족관계 요인	사회문화 환경요인
공직자 동기	공직동기 교육프로그램	3.24±.798	1			
	인사정책	3.11±.903	.587***	1		
자살예방	가족관계요인	2.56±.836	.468***	.419***	1	
	사회문화환경요인	3.24±.816	.515***	.435***	.548***	1

***p<.001

4)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 공직동기가 가족관계 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에 미치는 영향

다중회귀분석은 선형모형으로서 공직동기와 자살예방의 인과관계를 예측하고 인식하는데 필요한 통계적인 방법론이다. 공직동기가 자살 예방 관계 중 가족관계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4-7>과 같다. 먼저 공직자 동기가 가족관계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별, 결혼여부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였고, 연령, 학력, 재산정도는 연속변수로 사용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우선 각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및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살펴본 결과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는 0.1 보다 크며, VIF값은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⁴²⁾

먼저 모형 1에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재산정도 등 5개의 일반적 특성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은 2.138(.05<p)로 회귀 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R²값은 0.032로 가족관계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의 총 분산 가운데 3.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재산정도 등 5개의 일반적 특성 변수와 독립변수인 공직자 동기를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은 16.568 (p<.001)로 회귀 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R²값은 0.262로 가족관계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의 총 분산 가운데 26.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만이 회귀 식에 들어갔을 때의 R²값은 3.2%이었는데, 공직자 동기가 회귀 식에 포함됨으로서 가족관계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에 대한 설명력은 23.0% 증가하였다.

42) 공선성통계량(collinearity statistics)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10, 혹은 tolerance>0.2 일 때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편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공직동기 교육프로그램($\beta=.321$, $p<.001$), 인사정책($\beta=.236$, $p<.001$)이 가족관계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직동기 교육프로그램이 높아지면 가족관계요인으로 인한 자살 예방은 .321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직동기가 높은 공직자를 우선 채용하는 인사정책이 높아지면 가족관계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은 .236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4-7〉 공직자 동기가 가족관계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 1				모형 2				공선성 통계량	
		B		t	p	B		t	p	공차한계	VIF
통제 변수	(상수)	1.468		3.094	.002	.268		.618	.537		
	성별(d=남성)	.050	.023	.398	.691	-.009	-.004	-.083	.934	.907	1.103
	연령	.005	.031	.482	.630	.005	.036	.637	.525	.708	1.413
	학력	.142	.094	1.683	.093	.160	.106	2.155*	.032	.944	1.060
	결혼여부(d=기혼)	.509	.134	2.084*	.038	.089	.023	.406	.685	.685	1.460
독립 변수	재산정도	.031	.014	.255	.799	-.071	-.033	-.676	.499	.946	1.057
	공직동기 교육프로그램					.336	.321	5.306***	.000	.618	1.617
	인사정책					.218	.236	3.963***	.000	.640	1.563
<i>F-value(p)</i>		2.138				16.568***(.000)					
<i>R</i> ²		.032				.262					
<i>R</i> ²						.230					

* $p<.05$, ** $p<.01$, *** $p<.001$

(2) 공직동기와 사회문화 환경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과의 관계

공직동기가 사회문화 환경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4-8>과 같다. 먼저 공직자 동기가 사회문화 환경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별, 결혼여부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였고, 연령, 학력, 재산정도는 연속변수로 사용하여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실시에 앞서 우선 각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 및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을 살펴본 결과 각 변수들의 공차한계는 0.1 보다 크며, VIF값은 10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먼저 모형 1에서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재산정도 등 5개의 일반적 특성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은 4.135($p<.01$)로 회귀 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2 값은 0.059로 사회문화 환경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의 총 분산 가운데 5.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통제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결혼여부(기혼)($\beta=.183$, $p<.01$)가 사회문화 환경요인으

로 인한 자살예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자의 사회문화 환경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모형 2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재산정도 등 5개의 일반적 특성 변수와 독립변수인 공직자 동기를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F값은 21.858 ($p<.001$)로 회귀 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R^2 값은 0.319로 사회문화 환경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의 총 분산 가운데 31.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만이 회귀 식에 들어갔을 때의 R^2 값은 5.9%이었는데, 공직자 동기가 회귀 식에 포함됨으로써 사회문화 환경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에 대한 설명력은 26.0% 증가하였다. 각 통제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재산정도($=-.111$, $p<.05$)가 사회문화환경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산정도가 낮을수록 사회문화 환경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인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독립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공직동기 교육프로그램($=.363$, $p<.001$), 인사정책($=.226$, $p<.001$)이 사회문화 환경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직동기 교육프로그램의 인식수준이 높아지면 사회문화 환경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은 .363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직동기가 높은 공직자를 우선 채용하는 인사정책이 높아지면 사회문화 환경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인식은 .226의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문화 환경요인의 인식수준이 가족관계인식 수준보다도 더 영향력이 크다는 실증적인 결과가 도출되었다.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4-8〉 공직자 동기가 사회문화환경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에 미치는 영향

변수		모형 1				모형 2				공선성 통계량	
		B		t	p	B		t	p	공차한계	VIF
통제 변수	(상수)	2.038		4.463	.000	.812		1.995	.047		
	성별(d=남성)	-.039	-.018	-.322	.747	-.097	-.045	-.941	.347	.907	1.103
	연령	.014	.096	1.512	.132	.015	.099	1.814	.071	.708	1.413
	학력	.080	.054	.990	.323	.096	.065	1.381	.168	.944	1.060
	결혼여부(d=기혼)	.678	.183	2.883**	.004	.237	.064	1.157	.248	.685	1.460
	재산정도	-.130	-.062	-1.127	.261	-.234	-.111	-2.364*	.019	.946	1.057
독립 변수	공직동기 교육프로그램					.371	.363	6.242***	.000	.618	1.617
	인사정책					.205	.226	3.962***	.000	.640	1.563
F-value(p)		4.135**(.001)				21.858***(.000)					
R^2		.059				.319					
R^2						.260					

* $p<.05$, ** $p<.01$, *** $p<.001$

V. 분석결과의 함의

이장에서는 이 실증적 사회조사연구에서 발견한 것과 그 시사점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공직자들의 부패문제는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장애요인임은 이미 앞에서 논의 하였다. 최근 한국의 부패인지수(CPI)는 2016년말 현재 53점, 세계 52위(176개국 중)로 하락하였다. 중요한 것은 부패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부패혐의가 드러나면 당사자들은 급기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곤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살사건을 예방하는 것은 공직동기의 강화를 통하여 부패방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다. 실증적 분석결과가 주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요약한다.

첫째, 공직자들의 자살예방을 위하여서는 공직동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조사대상자의 85.6%이상이 공직동기교육 프로그램이 자살예방에 도움이 되며 74.8%이상이 공직자 우선채용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82.9%가 정신적 심리적 인지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었고 64.9%가 자기 파괴적 도피행위로서의 자살예방에 유효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공직동기는 가족 간의 갈등요인보다는 사회문화적인 환경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에 더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가족관계 $R^2=.262$; 사회문화적 환경요인($R^2=.319$). 통제변수의 분석에서는 사회문화 환경에 미치는 자살예방은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그리고 재산정도가 낮을 수록 더 영향력이 높았다. 즉 우리사회의 구조적 부패문화 환경을 청렴문화 환경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시급해 보인다.

둘째, 자살은 부패로 인한 자기 파괴의 궁극적인 종착역이며 심각한 고뇌와 갈등의 결과로 인하여 자기도피의 산물이다.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살예방의 최선의 방법은 부패의 사전 방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들의 자살은 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주는 충격성이 다른 계층의 자살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크다. 따라서 공직동기강화에 의한 공직자들의 부패방지와 자살 예방 전략을 동시에 수립 할 필요가 요청된다. 그러므로 공직동기를 높이는 특별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실시하거나 높은 공직동기 후보자들을 공직자로 채용하는 새로운 인사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VI.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공직자들의 부패와 자살관계가 심각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특히 가족 관

계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에 의하여 깊은 관계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자살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부패한 공직자들은 자살행위를 도피처처럼 사용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는 공직자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데에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이며 사전 공직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살예방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공직동기의 주입과 교육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공직자가 될 공직후보자에게 공직동기 교육을 실시함이 필요하다. 나아가서는 현실적으로 공직동기가 높은 공직후보자를 특별 채용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높은 공직동기가 부패억제나 자살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응답자의 태도였다. 따라서 공직동기(PSM)는 부패방지와 자살예방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공직동기를 높이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15.4.24 일자.
- 고 수철(2016), 자살예방전문교육사 교재, 서울: 두드림 자살예방중앙협회
- 구병식(1988), 신한국헌법론 서울: 일신사: 622.
- 권오균(2013), “저소득 독거노인의 자살생각 인과모형에 관한연구: 자아존중감, 우울감, 절망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 숭실대학교 대학원:1-124
- 김상묵(2013), 한국인의 공공 봉사 동기 서울: 집문당
- 김영중(2017), 신부패학 대전: 대경출판사.
- 김진영(2013), “경제성장과 부패는 역상관계가 있는가?” 한국부패학회보, 18(4): 31-49.
- 남 궁근(2011), 행정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 오필환(2007), “지하경제와 부패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12(4):265-280.
- 육 성필 외 3인(2011), 노인자살 위기 개입 서울: 학지사.
- 이 광자 외 4인 (2013), 전화상담의 이해 서울: 정민사
- 이데일리, 2015.5.18
- 이기춘(2016), “자살의 심리적특성과 요인분석”, 자살예방전문교육사및 상담사자격인증교육 전문과정 교재, 서울: 두드림자살예방중앙협회: 82.
- 이윤주(2008), 청소년 자살상담 서울: 학지사
- 최도림(2004),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Ethical Conduct” in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8(2): 99-106.
- 최영인, 엄건령(2005), 문화적 이탈이론과 범죄학습이론 서울: 백산 출판사.
- 최태성, 김성호(2004), 사회과학을 위한 통계자료분석 서울: 다산출판사.
- 토마스 조이너(김재성 옮김)(2005),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서울: 황소자리 출판사.
- 홍콩수요저널 2013.9.18일자
- 헤럴드 경제 2015.4.20
- Arnold J. Heidenheimer (ed.) (1978), Political Corruption: readings in comparative analysis,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 Amsden, Alice H. (1989),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bbie, Earl R. (1979),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Inc.
- Brewer, G. A., Selden, S.C. & Facer II, R. L. (2000), 'Individual Conception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3), 254-264.
- Burrell, Gibson and Morgan, Gareth (1979), Sociological Paradigm and Organizational Analysis: Elements of the Sociology of Corporate Life, London: Heineman.
- Carino, Ledivina V. (1986), Bureaucratic Corruption in Asia, Quezon City: JMC Press, Inc.
- Collier, M.W. (2002), Explaining Corruption: an institutional choice approach, Crime, Law and Social Change, (38(1):1-32.

- Dean, P, and Range, L(1999), “Testing the Escape Theory of Suicide in an Outpatient Clonical Popul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3(6): 561-572.
- Frederickson, H. George (ed.)(1993), *Eth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New York: M.E. Sharpe, Inc.
- Gould, David J., (1983) *The Effects of Corruption Administrative Performance: Illustr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Washington: The World Bank.
- Huntington, Samuel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7-11, September 1997), the Lima Declaration, Lima, Peru: 1-5.
- Joiner, Thomas (김재성옮김) (2005),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가?* 서울: 황소자리 출판사.
- Johnston, Michael (1982), *Political Corruption and Public Policy in America*, Monterey: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Kim, Young Jong(1990), *Bureaucratic Corruption : The Case of Korea*(2nd edi.) Seoul : The Chomyung Press.
- Klitgaard, Robert(1988), *Controlling Corrup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inwand, Gerald (1974), *Political Corruption*, New York: Pocket Books.
- Miller, William L.(2001), *A Culture of Corruption*, New York: CEU Press.
- Perry, J. L. & Hondeghem, A. (2008), *Motivation in Public Management. The Call of Public Service*,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et al.
- Perry, J. L., Hondeghem, A. & Wise, L. R. (2010), ‘Revisiting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Twenty years of research and an agenda for the futur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70(5), 681-690.
- Perry, J. L. & Wise, L. R. (1990),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3), 367-373.
- Perry, James L., and Lois Recascino Wise (1990).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 367-373.
- Quah, Jon S.T. (2013) *Curbing Corruption in Asian Countries* Singapore: ISEAS Publishing
- Quinnett, Paul G. (2006), *(이해선. 육성필 공역), 자살: 심리치료의 실제* 서울: 학지사
- Rainey, H. G. & Steinberger, P. (1999), ‘Gallopig elephants: Developing elements of a Theory of Effective Government Organization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9(1), 1-32.
- Rainey, H. G. (2009), *Understanding and Management Public Organizations* San Francisco: John Wiley & Sons, Inc. *Public Management Journal*, 11(4): 404-425.
- Siegel, Larry J.(1995), *Criminology* , St. Paul: West Publishing Co.
- Simis, Konstantin M. (1982), *The Corrupt Society: the secret world of Soviet capitalism*,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utherland, Edwin (1983), *White-Collar Crime: The Uncut Vers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Tony White(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편역)(2013), 자살상담과 치료 서울: 학지사
- Traub, Stuart H. and Little (1975), Theories of Deviance Itasca: F.G. Peacock Publishers, Inc.
- Warwick, Donald P., and Lininger, Charles A.(1975), The Sample Surve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 Wenzel, Amy 외 2인 공저(김학렬,김정호 공역) 자살환자의 인지치료 서울: 학지사
- Werner, Simcha B. (1983), "New Direction in the Study of Administrative Corrup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3 (No.2):146-154.
- Yamamura, Eiji et al. (March 8, 2011), "Does corruption affect suicide? : Empirical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in <http://mp.ra.ub.uni-muenchen.de/29693/>(Accessed on April 11, 2016): 1-10.
-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rkb04a1007>(Accessed 'on May 26,2015)
- <http://www.mcclatchydc.com/news/nation-world/world/article24785056.html> (Accessed on May 17, 2016)
- https://en.wikipedia.org/wiki/Suicide_in_South_Korea(Accessed on May 10, 2016)
- <https://www.ticambodia.org/cpi2016/>(Accessed on Feb.5, 2017)
- <http://www.ikorea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5397>(Accessed on Feb. 17, 2017)
- http://www.sciencetimes.co.kr/?p=117700&post_type=news&paged=16(Accessed on Jan.15, 2017)
- http://worldhappiness.report/wp-content/uploads/sites/2/2013/09/WorldHappinessReport2013_online.pdf(Accessed on Jan20, 2017)

11. 부록

공직자 자살요인과 PSM (공직자 동기이론) 설문지

“이 설문지는 연구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며 관련정보는 엄격하게 보장됩니다.”

*** 가장 적절한 답에 0 표를 하여 주셔요

- 배경: 1. 성별(남. 여) 2.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3. 교육(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이상)
4. 결혼(예. 아니요) 5. 재산 정도(상. 중. 하)
1. 높은 공직동기가 가족 관계의 갈등(예: 형제자매나 부모와 갈등)으로 인한 공직자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높은 공직동기는 공직자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 높은 공직동기는 공직자가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인지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 할 수 있다.
 -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4. 높은 공직동기는 공직자 자신이 부패로 인한 자기 파괴적 도피행위인 자살예방을 할 수 있다.
 -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5. 공직동기 교육프로그램 실시가 자살예방에 가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6. 공직동기가 높은 공직자를 우선 채용하는 인사정책이 자살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투고일자 : 2017. 03. 10

수정일자 : 2017. 03. 30

게재일자 : 2017. 03. 31

<국문초록>

공직자의 부패와 자살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공직동기(PSM)를 통한 자살예방을 중심으로

김 영 중

이 논문은 공직자의 부패와 자살예방이 공직동기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 실증적인 사회조사의 상호 보완적 방법론을 통하여 해결을 제시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사회 조사대상자는 중앙교육공무원연수원과 지방공무원 연수원의 피교육 공무원 중에서 판단 표본 추출된 조사대상자 334명이었다. 조사기간은 2016.11.1-12.15 이었으며 조사내용은 “공직동기와 자살예방에 관한 인식과 태도” 이었다. 표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SPSS Win 21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술통계와 추론통계를 이용한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발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에서 응답자들은 높은 공직동기가 자살예방을 할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신적, 심리적, 인지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예방에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82.7%). 그다음은 자기 파괴적 도피행위라고 인정한 자살예방이었다(64.9%). 둘째, 요인분석결과 공직동기가 자살예방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가족관계요인(요인1)과 사회문화 환경요인(요인2)이었다. 요인1의 경우 주성분분석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그 신뢰도는 높은 점수이었고, 각각 .800과 .654 이었다. 셋째, 상관관계분석결과 공직동기 교육 프로그램이 가족관계요인의 상관관계보다(.468) 사회문화 환경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515). 그리고 공직자 동기 인사정책도 가족관계요인(.419)보다 사회문화 환경요인(.435)에 더 상관관계가 높았다. 이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p < .001$). 넷째, 다중회귀분석결과 공직동기교육프로그램($\beta = .321$)이나 인사정책($\beta = .236$)이 가족관계요인에 유의미한($p < .001$)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자동기가 사회문화 환경으로 인한 자살예방에 교육프로그램($\beta = .363$), 인사정책($\beta = .226$)에 유의미한($p < .001$) 정(+)의 영향을 주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높은 공직동기(PSM)는 부패방지와 자살예방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공직동기를 높이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인사정책방향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공직동기, 공직자, 부패, 자살, 공직동기 교육프로그램, 공직동기 모집 인사정책